



보도자료

담당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
(02-3775-9029, skim@kiri.or.kr)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02-3775-9115)

보도 2024. 5. 2(목) 15:00부터
매수 총 3매

보험연구원,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세미나 개최

“주요국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아직 성장여력이 있음”
“중소기업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력이 요구됨”

○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5월 2일(목) 오후 2시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KIRI 세미나를 개최함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14:00 ~ 14:10	(개회사)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14:10 ~ 14:35	(주제발표1)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현황과 이슈: 제조업종 설문조사를 중심으로/김혜성 ((주)국제손해사정 고문), 김석영(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35 ~ 15:00	(주제발표2) SME Risks - Big Data 분석을 활용한 사업 효율화 방안 / 최용민 (원hen재보험 전문)
15:00 ~ 15:10	Break Time
15:10 ~ 16:00	(패널토론) 좌 장 : 정중영 (동의대학교 교수) 토 론 : 심정보 (스위스리 전문), 장명조 (삼성화재 상무),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가나다순

○ (주제발표 1) 김혜성 고문·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현황과 이슈’라는 주제로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 추정과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특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보험시장 비중) 주요국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60%를 상회하나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그 비중이 22.3~34.2%에 머물러 있음
- (제조업종 중소기업 보험 보장 공백)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보험가입률은 화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주요국과 비교하여 기업휴지보험, 사이버리스크보험 분야의 보장 공백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남
 - 보험가입률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 14.3%, 근재보험 13.2%, 영업배상책임보험 10.9%,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3.2%, 임원배상책임보험 2.2%, 사이버리스크보험 1.3%에 그치며 재물보험 가입기업의 특약 가입률은 풍수해특약 10.3%, 동산특약 5.5%, 기업휴지특약 3.8% 등임
 - ※ 사이버리스크보험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이비즈보험, 사이버보험
- (보험료 부담과 낮은 인식도) 중소기업의 높은 보장 공백은 중소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함께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필요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기환급금 선호)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순수보장형이 아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장기재물보험, 장기단체상해보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짐
- (리스크 선진화와 보장 공백 축소 대책)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보장 공백 축소를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 산업, 중소기업 관련 단체, 정부 유관 부처들이 노력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토대로써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및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정기적 자료 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과 비교할 때 미래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 축소와 손해보험 및 공제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선순환을 이루는 영역이 될 것임
 - 손해보험 및 공제산업, 중소기업 관련 단체, 정부 유관기관은 협업하여 중소기업

업종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및 보험 포트폴리오 구축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들은 향후 추가 보험 가입 의향을 높이는 요소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28.5%)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꼽았음
-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주력 판매채널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65.2%)이므로 보험 산업은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서비스의 주력 전달자인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의 리스크컨설팅 역량을 제고해야 함
- 중소기업 보험시장 연구와 정책의 발전을 위해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사례와 같이 정기적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현황 조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주제발표 2) 최용민 뎀재보험 전문은 ‘SME - Big Data 분석을 활용한 사업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SME 보험시장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영업 효율화를 제안함

- (보험회사의 낮은 보유율) 중소기업 재물리스크는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더욱이 낮은 보험료에 비해 전손 가능성이 높아 손해보험회사의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수익기반 마련) 보험회사는 손해충당 재원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수익기반 마련 차원에서 더 많은 우량한 중소기업 고객 유치가 필요함
- (수익성 제고: 빅데이터 활용) 빅 데이터 활용은 벤치마크 분석을 통한 타겟 리스크 고객군 선정, 적정 채널 활용을 통한 마케팅 효율성 증대 도모 등을 가능하게 하여 보험회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관기관의 유기적 역할 협업) 이와 더불어 간편심사 및 언더라이팅 자동화 (Simplified Underwriting)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은 보험회사들에게 아직은 도전적인 상황임으로 유관기관, 즉 중소기업중앙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등간의 유기적 역할 협업을 통한 세부 과제추진이 요구됨
- ① 특성화된 업종별 리스크 설문 개발, ② 중소기업용 상품 및 보장 개발, ③ 리스크 인식의 제고와 Risk Quality 관리 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